

## 내부 FA 남아있는 기아 “오버페이는 없다” 밝혀

베테랑 최형우에 최종 오퍼 전달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도 논의 중  
조상우에게도 계약 조건 제시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겨울 프리 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 베테랑 타자 최형우에게 최종 오퍼를 전달했다. 이제 남은 건 최형우의 선택이다.

KIA 관계자에 따르면 KIA는 지난달 28일 오전 최형우 측에 최종 오퍼를 전달했다.

베테랑 타자 최형우는 마흔을 넘긴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올해 그는 정규시즌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469타수 144안타) 24홈런 86타점에 장타율 0.529을 작성하면서 팀 내 타율, 타점 1위, 안타, 홈런, 장타율 2위에 올랐다.

여기에 KBO리그 최초 4400루타, 1700타점을 돌파해 역대 최고령 400홈런, 2500안타 등 각종 통산 기록도 새로 썼다.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그는 세 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내년이면 만 43세의 노장이지만, 검증된 장타력을 갖춘 만큼 FA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타자다.

현재 최형우 영입전에서는 원소속팀 KIA와 친정 팀 삼성 라이온즈가 2차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형우에게 뜨거운 구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전력인 최형우를 붙잡기 위해 KIA도 지난달 27일 최형우 측과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전날 조건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최종 협상안을 전달했다.

KIA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은 팀의 상징과도 같은 투수 양현종과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은 KIA를 상징하는



KIA 타이거즈가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은 6명의 선수 중 아직 계약하지 않은 내부 FA 선수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좌측부터 차례대로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선수. /뉴스시

프랜차이즈 스타로, 2007년 데뷔 후 메이저리그 진출(2021년)을 제외한 18시즌을 KIA에서 보내며 2009년, 2017년, 2024년 우승을 함께했다.

첫 FA였던 2016년에는 1년 22억5000만원, 이후 2021년에는 4년 최대 103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잔류했다.

양현종은 올해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53이닝을 소화하는 등 꾸준함을 보여줬다.

KIA는 필승조 조상우에게도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조상우는 올해 72경기에서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을 기록, 불펜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KIA는 팀 간판스타 최형우, 양현종을 잔류시키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상우에게 큰 규모의 계약을 제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KIA 관계자는 “목표는 3명 모두 잡는 것이지만,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종료 후 KIA에서는 내야수 박찬호, 양현종, 조상우, 투수 이준영, 최형우, 포수 한승택이 FA 자격을 취득했다.

당초 KIA는 내부 FA 전원 잔류를 목표로 했지만, ‘오버페이’를 지양하는 방침 탓에 6명을 모두 붙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올겨울 FA 최대어로 꼽힌 유격수 박찬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나머지 FA 선수들과 계약도 병행해야 했던 KIA는 결국 박찬호를 붙잡는 데 실패했다. 박찬호는 지난달 18일 두산 베어스와 4년 최대 80억원에 계약했다.

포수 한승택도 마찬가지였다. 내부 FA 가운데 시장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20일 KT 위즈와 4년 최대 10억원에 사인하고 팀을 떠났다.

두 명을 놓친 KIA는 좌완 불펜 이준영을 3년 최대 12억원에 붙잡으며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올겨울 내부 FA만 6명에 달해 혼전이 예고됐던 KIA의 스토브리그는 예상과 달리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형우의 최종 선택이 KIA 스토브리그의 신호탄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시



지난 11월 15일 보성파크골프장에서 '2025 보성파크골프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 ‘18홀 규모’ 보성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개시

군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건강·소통·관광 기능 갖춘 명품 구장

보성군은 오는 2일부터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한 18홀 규모 ‘보성파크골프장’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을 통해 시설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점검한 뒤, 2026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한 보완 및 정비 작업이 병행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8:00~12:00 / 13:00~17:00 운영되며, 1일 30팀(120명) 한도로 누리집(https://www.boseong.go.kr/parkgolf)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성파크골프장’은 총 부지 31,515㎡에 18홀 규모로 조성된 생활체육 경기장이다.

인근에는 차밭과 한국차문화공원이 위치해 자연 조망과 힐링 환경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체육·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 체험 공간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파크골프장이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고, 세대 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파크골프장 준공을 기념해 지난달 15일에 보성군파크골프협회(회장 문호진) 주최로 ‘2025 보성파크골프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15개 클럽·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동호인 교류와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보성/김문기 기자

## ‘스포츠 메카’ 강진군, 전지훈련 유치 실적 우수

스포츠마케팅 우수시군 평가서 3년 연속 ‘최우수상’

8개 종목 316개 팀 방문...132억의 경제 효과 거양



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4년~2025년 전지훈련 유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스포츠마케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강진군은 상사업비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간 실시한 전지훈련, 전국대회, 스토브리그 실적 등을 바탕으로 유치인원, 홍보실적, 관광문화시설 이용, 계획 수립, 우수시책 5개 지표인 종합평가와 홍보실적, 순위변화, 계획수립, 우수시책 4개 지표인

노력평가로 이뤄졌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검도·그라운드골프·축구·배구·펜싱 등 16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해 2만 7,717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강진을 찾았고, 또한 럭비·배구·사이클·테니스 등 8개 종목, 316개 팀, 7,138명이 동·하계 전지훈련을 위해 강진에 체류하며, 훈련을 진행하였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합한 연인원 13만 625명이 지역 내 숙박·식사·관광·문화체험을 즐기며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경험했다.

이러한 스포츠 방문객 증가로 발생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약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축제와 관광 수요 확대, 생활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진군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해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했다. 전문 인력 확충과 종목별 단체·연맹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전지훈련 유치 인원이 전년 대비 약 5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진/손경설 기자

## 손흥민, 팬들에 작별인사 차

오는 21일 토트넘 방문 예상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간판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FC)이 내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을 방문해 친정팀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한국 시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소속팀 일정을 마친 손흥민은 귀국 후 겨울 휴식기를 활용해 회복에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을 갖는 만큼, 12월에는 ‘친정팀’ 토트넘 홈 구장에도 찾은 계획이라고 한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퍼스웍’은 최근 “손흥민이 12월 토트넘을 찾는다. 경기 전, 하프타임 등 팬들을 만날 계획은 세웠다”며 “토트넘은 이런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내달 21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가 가장 유력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뉴스시

## 한국 남자 농구, 중국의 만리장성 넘었다

2027 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B조 1차전 승리

한국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원정 1차전에서 80-76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전에서 중국(FIBA 27위)에 당했던 패배를 설욕했다. 이번 예선은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눠 경쟁한다. 각 조 1-3위에 오른 총 12개 구단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구조다.

한국에서는 ‘에이스’ 이현중(나가사키)이 3점슛 9개를 포함해 33점 14리바운드의 더블더블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한국은 전반이 끝난 시점에 13점 차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4쿼터 경기 종료 21초 전에는 79-76으로 3점

차까지 쫓기기도 했다.

이현중은 “승리해서 기쁘지만 4쿼터에 나와선 안 될 턴오버가 많았고, 좀 더 쉽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안일했던 것 같다”며 “좀 더 준비해서 월요일 중국과의 2차전을 이겨야 진짜 설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회철 감독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이 중국을 상대로 준비한 부분들을 공수 양면에서 잘 소화해 줬다”라며 “다만 4쿼터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날 80-76 승리를 거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1일 원주 DB프로미아레나에서 중국과 2차전을 갖는다.

/뉴스시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월스트림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팅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양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코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븐 커피스타이션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영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 건설 | 이현희/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